

“성도라면 성경 가치 따라 사는 것 마땅... 그걸 주장한 것”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지난 1월 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손 목사는 “그동안 잘 쉬다가 나오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세계로교회와 또 국내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미국 대사관에서 참여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신 루비오 장관님과 벤스 부통령님, 미국에 계신 수많은 교민들 미국의 목사님들 1만 명이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는 평생을 목회만 했지 어떤 다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선 적이 없었다. 코로나 때는 비록 간헐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0번이나 고발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 1건이 남아 있는데 수많은 경찰 조사와 검찰과 재판을 했다. 그리고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아무개든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 목사는 “이 나라가 바른 정치와 바른 사법 체계가 갖춰졌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아무리 피아나는 꽃들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이날에도 빠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오직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성도라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걸 주장한 것이다. 저는 돈을 벌거나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 아예 대한 오해를 불러넣은 것에 대해 즉시로 항소를 할 것이고, 이는 자유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교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교분리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하여 종교가 분리되고 국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종교 행위도 막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 청교도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종교가) 탄압을 받고 예배를 못 드리고 참수를 당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헌법 1조에 의거하여 어떤 권력도 어떤 국가기관도 교회 혹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은 거꾸로 되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종교인들도 국민이자 유권자이다.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된다. 그 주장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손 목사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을 잘 보냈다. 책도 한 몇 권 읽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현보 목사가 기자회견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어떤 유튜브에는 실시간으로 조회 수가 수십만 이 되면서 온갖 말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시민들은 이렇게 여러 가치를 읊어배어 속박을 하고 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가치를 지킬 것이고 제가 재판정에서 말한 것처럼 판사 당신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양심의 종류에 따라서 내 양심의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 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사는 인생에서 염려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염려할 것은 없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경의 가치를 지키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손 목사는 “지금 언론을 보면 자유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꼴 먹은 병어리가 되어선 안 된다.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닌,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손 목사가 종교 집회와 교회 시설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설교의 범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성과 고의성을 모두 갖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과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목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손현보 목사는 교회 목회 활동과 함께 기독교계 단체인 '세이프코리아'의 대표로도 활동해 왔다. ▶관련기사2면 최승연 기자

“역대 최강 독소조항” 국회 모인 4천 명, 차별금지법 강력 규탄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집회 갖고 법안 철회 촉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이하 거룩한방파제)가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약 4천 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9일 손술 의원(진보당) 등 10

이런 시위 한 달... 이런 지하 교회 “트라우마·감시 속 고통” ▶ 7면

청현재이 말씀그라피선교회,
2026 말씀그라피 신년기획전 ▶ 23면

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는 해당 법안을 두고 2007년 이후 발의된 역대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가장 독소조항이 강한 법안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독재적 약법이라고 규정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둘러싼 표현과 비판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신앙과 양심,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괴롭힘 조항, 비판 자체를 차별로 규정... 표현의 자유 원천 봉쇄”

거룩한방파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법안에 포함된 ‘괴롭힘 조항(제2조 제9호)’이다. 해당 조항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표시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

을 주는 행위까지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 조항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차별로 낙인찍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거룩한방파제는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라며,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을 통제하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개인과 교회 파산 위험”

거룩한방파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부담도 심각하게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위반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 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징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1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거룩한방파제

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가 ‘차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도 포함됐다. 거룩한방파제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인과 교회, 관련 단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배상 책임에 직면해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애나 젠

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개인과 종교 단체들이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3면에 계속 장지동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29.9km

영월

70.3km

삼척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